

# 동양사상에 기반한 '상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rmonic Design based on oriental thoughts.

김종균, 배한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Kim Jong-kyun, Bae Han-na.

Faculty of Craft & Design, Seoul national Univ.,

● Keywords: 東洋思想, 緣起說, 相生

## 1. 연구목적, 방법 및 범위

서구중심의 문명에 대한 비평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고, 또 한 세기가 지나 우리것을 찾자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서도 유독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것중의 하나가 물질문명이다. 이미 길들여져버린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길들여져서 정신은 계승할지언정, 지금의 물질문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이중적인 '정체성찾기'에 급급한 현실에 과연 물질문명은 서구적인 것을 택하고, 정신만을 계승하겠다는 현대판 '東道西器'가 어느만큼 가능하냐는 반문을 하게 된다. 서구적 사고의 산물은 일회적이고, 소모적이다. 사회구조, 경제구조, 정치구조가 모두 서구적인 것을 수용한 마당에 도구나 환경의 측면에서 우리것을 되찾자라고 말하는 것은 망상일수도 있다. 물질과 정신을 구분한다는 발상부터가 서구적인 이성주의에 충분히 동화되어 있는 것이며, 전통문화라고 칭하는 일련의 문화권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현실과 분리되고, 유리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음악과 오행, 풍수와 기는 미신적인 요소로 치부되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근대적 합리주의가 표준으로 자리잡은 때에 다시 이 둘을 융합하자는 이야기는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구호로 그치고 있다. 18세기 계몽주의 열풍이 휩쓸지, 200년이 지난 지금은 서구 내부에서조차 스스로 문화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시인하고 나서고 있다. 진보라고 믿는것들은 정치적인 구호일뿐, 결코 본질적인 변화란 있을수 없음을 깨닫고, 되려 동아시아와 제3세계에서 그 정신문화를 수입하고,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동화시켜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문화고유의 정체성의 확립과 문화적 디자인에 대한 자각이 뒤따라야 할 때이다. 이 연구는 서구적 관점의 단선적 시간관에서 벗어나 동양전통사상에서 제시되는 순환적 시간관을 적용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주된 연구의 방향은 동양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유희선과 전통철학·사상을 바탕으로, 불교적 시간관(순환적, 윤회)을 적용한 현대의 디자인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으로서의 동양사상에서의 조형의식을 살펴봄, 디자인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 2. 동양과 서양<sup>1)</sup>

동양적 디자인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주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동양'에 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 '동양'이라는 특질을 '서양'이라는 차연(비교대상)을 통해 파악한 이후에, 동양보편적인 조형사상과 조형원리를 추출해낼수가 있고, 이로

1) 동양과 서양이라는 큰 이분법적인 발상 역시 서양적인 발상임을 미리 주지한다. 세계의 문명권은 크게 3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며, 거대한 이슬람 문화권과 그 주변국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마땅하나, 중간자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를 함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일단은 논의에서 제외시킨다.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서양은 현대의 미국이나 거대한 유럽전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지중해연안을 말하며, 동양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등을 모두 포함한다기보다는 중국을 일컫는 것이 더 정확하다.

써 지역정체성이 드러나는 문화적 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수 있다.

동서양은 문명의 시작에 있어서부터 그 기준이 되는 세계관, 우주관, 윤리관등이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작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초자연적인 '신의 계율', 동양에서는 '자연의 도'를 따라야 할 대상으로 상정한 자연관과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서양은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으로써의 자연관을, 동양은 융화하고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대상으로써 자연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양은 자비의 대상을 자연만물까지 포함하는 '인(仁)'을, 서양은 '애(愛)'를 사상적 측면의 덕목으로 꼽게 되었다. 서양의 있어서의 애(愛)는 동양의 인(仁)에 비하여서는 협의의 사랑이고, 배타적 인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서양의 신은 인간보다 우선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반면, 동양의 신은 친근하고 인간적이며, 지극히 낮추어진 형상의 다양한 신-자연신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중해연안의 수렵의 문화와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농경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는 자칫 서양의 사회는 능동적이고, 진보의 사회이고, 동양은 수동적이고 정체된 사회를 나타내는 증거로 생각되기도 한다. 동양은 '순환적 세계관'에서 드러나는 조화를 우선시하는 '음양사상'과 '중용'의 미를 중시했고, 서양은 '직선적 세계관'과, 정반합의 투쟁을 거친 '변증법적 발전'을 통한 '진보'를 중시했었을 뿐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양자가 비교로써 경중, 우열을 가릴수는 없다.

또 철학적 측면이나, 세계관, 우주관에 있어서도 서양은 물질주의에 바탕한 사상을 펼치고 있는 반면, 동양은 무(無)사상에 바탕한 음양론과 허공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서양은 우주와 별을 관찰함에 있어 물리적인 속성을 망원경을 통하여 현상을 관찰하는 지성의 측면을 중시한 반면, 동양은 우주와 자신사이의 텅빈 공간을 바라보는 직관적 방법으로 앎을 중시했다. 물질의 근원에 있어서도 서양의 물질론은 원자론, 원소설과 같은 조깅 수 없는 최소한의 입자들로 구성된 부분의 합을 물질로 바라보는 요소환원주의적 물질관이었던 반면, 동양은 무(無)에서 유(有)가 생겨나고, 다시 유(有)는 무(無)로 돌아간다는 조화로운 세계의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의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색즉시공(色卽是空)에서는 물질에 대한 절대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회의주의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철학적 사조는 서양에 있어서도 현대에 들어서야 제시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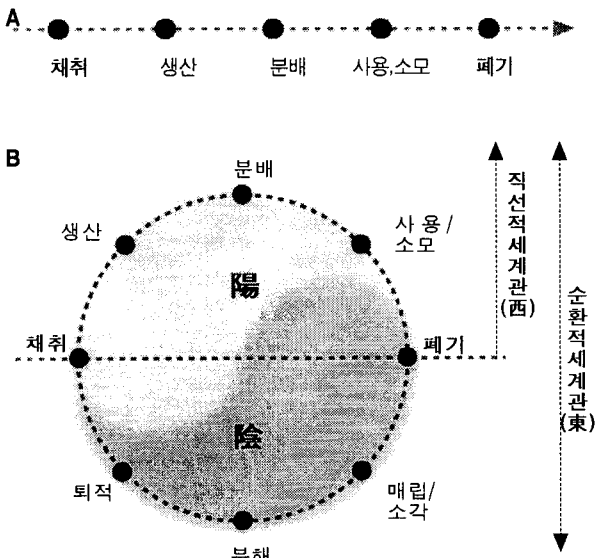
	동양	서양
사회	중용	진보
종교	자연의 도(道)	신의 계율(戒律)
사상	인(仁)	애(愛)
환경, 문화	농경문화	해양문화
인식	직관(直觀)	지성(知性)
물질관	무(無)	유(有)
세계관	음양론	변증법
우주관	허공	실체

<표 1 동양과 서양의 비교>

있는 개념이고, 현대물리학에서 증명되고 있는 물질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와 물질에 대한 시각은 서양과 동양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고, 현대에 이르고 있다.

### 3. 기독교적 물질관과 디자인

물질에 있어서는 '서구화', '근대화', '현대' 등의 용어와 '기독교적'이라는 용어를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사되고 적용된 물질문명이 오늘날의 물질문명이며,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라이프사이클 - 서구화된 모든 물질문명-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물질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전통문화권에 관하여, 그 내재된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개하고,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관찰할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흡사 우리가 현대의 중동지역이나 남아, 아프리카, 덜 서구화된 몇몇 동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듯이 말이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적 물질관과 세계관의 소비 성향에 젖어서 살고 있는데, 맥도널드와 크리넥스, 그리고 콘크리트포장된 땅바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회성 소비문화는 단선적 세계관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채취로부터, 생산, 분배, 소모, 폐기의 과정만을 고려할뿐(그림A) 그 이후의 매립, 분해, 퇴적에 이르는 수천년의 시간을 망각하는 행태가 이를 대변한다. 맥도널드햄버거로 대변되는 패스트푸드는 앞서의 1회성 소모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합법적인 도살과 짐승의 '피'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業'을 짓고 있다. 넓게 포장된 콘크리트위에 살며, 자신이 우주와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불교의 '緣起說'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행태는 다시금 나의 자손들에게 순환되어 보상되어지며, 자연을 해치는 행위는 나의 몸을 해치는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행위의 일체를 '業'이라 부른다. 그림A에서 보여지는 바는 그림B의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보여지는 단선적 세계관이 투사된 소모행태의 기록이며, 전체시간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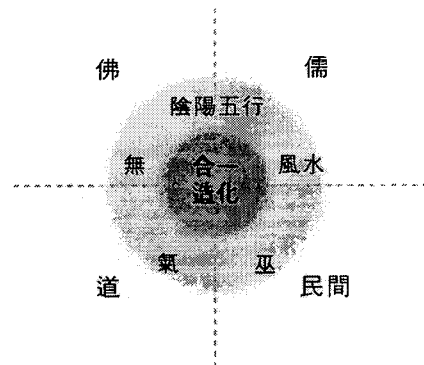
〈서구적 물질관(A)과 동양사상에 기반한 물질관(B)〉

### 4. 동양조형근간사상과 디자인의 원리

동양의 조형의식을 이루는 근간사상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sup>1)</sup>, 무사상(巫思想), 풍수사상

1) 우주를 형성하는 원리이자 질서의 원리로 생활 모든 것에 영향을 주었

(風水思想)<sup>2)</sup>등과 같은 만물의 근간을 이루는 조화와 질서의 원리위에 구축되었다. 이러한 원리들은 유불선의 사상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각각 修己治人, 成佛, 無我等과 같은 개념의 인본주의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친자연적, 친인간적 성향을 그 바탕으로 하며, 그 대상이 인간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는 우주만물에 미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一元的 사상을 바탕으로 '相生'과 '合一'의 경지를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모든 조형물은 이러한 사상과 조형원리를 배경으로 생성되었으며, 사용되고 폐기되었다. 동양사상에 따른 물질의 생산은 인간과 자연의 相生이 주 목적이거나, 서구적 현대디자인은 자연과의 相剋이라 말할 수 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소비생활을 자연을 쉼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상생적 물질관을 디자인에 적용하면, 현행 디자인프로세서와 라이프사이클, 사용행태에 있어 근원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경제가치가 중심인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생태환경을 위한 조형언어로서, 인간성회복과 자기완성을 위한 디자인으로, 나아가 지속발전가능한 형태의 디자인을 지향하기 위한 배경사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과 사용자가 서로 상생하는 오행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디자인 보편의 기초사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양조형의식의 근간사상과 목표〉

### 5. 향후연구과제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이때에, 유독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방법론에 있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디자인은 그 발생부터가 진보와 산업혁명의 산물인바, 결코 동양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우하우스의 모더니즘적 이상을 주입받은 지난세기 디자이너들의 편견이다. 서양의 문화가 동양을 수치적으로 앞지른 것은 수십세기중 불과 2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다. 헤겔이 말하는 식으로 역사의 발전이 正反合으로 이루어진다면, 동양의 문화는 反이 되어서 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조화'로움이 발현될 시기인 것이다. 차후 앞에서 언급한 동양적 사상을 배경으로 디자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 원리의 추출이 시급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연구. 통상산업부. 1997.
- 동양과 서양. 최영진. 지식산업사
-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장파
- 한중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
- 공간디자인16강. 권영걸

다. 이는 무(巫)와 풍수(風水) 등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며, 우주를 형성하는 원리이자 질서로, 존재의 구성체계이다.

2) 땅의 기(氣)를 살피는 일로, 모든 만물을 인격화(人格化)하고 신격화(神格化)하여 땅도 하늘도 모두 살아 있는 것으로 인식, 땅의 기를 살피는 일이 풍수이다.